

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민 설명회를 개최로 올해 첫 사업 시작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본설계안을 만들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귀가할 때 마다 불안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가가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설계안을 화성시 등 10개 사업지에
제공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2-2110-3468)
		담당자	사무관 홍송이 (02-2110-3103)



1 사업 개요

- (사업 개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추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
- (추진 내용) 노후 주거지 등을 통해 방범시설 확충(CCTV, 보안등, 비상벨), 공폐가 정리, 조명 시설 설치 등으로 무질서한 공간과 범죄취약 시설 개선
- (지원 내용) 기본설계안 및 주민교육 운영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죄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환경디자인 사업

2 추진 절차

- (사업지 선정) 1월에 신청을 받아 2월 말에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사업 연계 지자체 사업지, 지자체 자체 CPTED 사업지 등
- (사업 과정) 지자체 공무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면·현지조사 자료 및 지자체,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셉테드 설계안을 제공

공무원설명회 (3월)	⇒	사전조사 및 주민설명회* (3~5월)	⇒	기본설계안 마련 (4~7월)	⇒	주민공청회 (5~7월)	⇒	기본설계안 확정 (7~9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과정·사례 소개		지역 문제점 파악 주민 의견 수렴		조사 자료 및 주민 의견 종합		기본설계안 발표 주민 의견 확인		최종 결과물 지자체 제공

* 주민 교육 후 팀(진행자 1명, 주민 4명)을 이루어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사업 지역을 이동하며 안전 지도 제작

3 실제 사업 사례

[태양광 표지병 및 큐브 안내판을 통한 마을 안길 조도 개선]		[벽면 도색을 통한 환경 정비]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전	사업 후